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 모색

전북도, 무주군·진안군 심근경색증·뇌졸중 조기 증상 인지율 원인 규명

전북도가 도내 시군 간 건강 격차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그 원인을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한다.

도는 무주군과 진안군의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 증상 인지율에 대한 원인규명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3년간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질병관리청의 용역 사업으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진행하며, 전북도와 무주군·진안군 관계자, 연구대학 교수·전문가 등이 '지역간 건강격차 원인 규명 및 해결방안 개발 지역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된다.

건강 격차 지표는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조기증상 인지율이다.

최근 3년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무주군은 전북 평균보다 심근경색증과 뇌졸중 조기증상 인지율이 낮고, 진안군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무주군을 사업지역으로, 진안군은 대조지역으로 선정해 두 지역 간 건강 격차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원인 규명을 위한 자료 분석 및 파악, 2차 연도인 2022년에는 추가 원인 규명 및 중재 모형 개발, 3차 연도인 2023년에는 실제 중재모형 적용 및 격차 해소전략 제시를 통해 지역간 건강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경영 도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심근경색증과 뇌졸중 조기증상 인지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해 도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은 갑자기 나타나는 특징이 있지만, 신속히 대처해 조기에 치료하면 사망과 장애를 막을 수 있다. 심근경색증의 조기 증상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고 호흡곤란, 식은땀, 구토, 현기증이 나타나는 것이며, 뇌졸중은 한쪽 마비, 갑작스러운 언어 및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 등이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해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를 위한 최적 시기(골든타임)는 심근경색 2시간 이내, 뇌졸중 3시간 이내이다. /유호상 기자

농신보 운용배수 20배 근접... 정운천 의원 "적정운용배수 이내로 기금 운용해야"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어민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농어업인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운용배수가 법정운용배수(20배)에 근접하면서 기금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운용배수'란 농신보가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대비 대출 보증잔액의 비율로서 기금의 건전성 여부를 따지는 수치이다.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농신보법'에는 법정운용배수를 신용보증총액 한도가 기금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신용보증규정에

서는 적정운용배수를 12.5배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신보 운용배수는 지난 2018년 9.7배로 신용보증규정에서 정한 적정운용배수(12.5배) 이내에서 운용이 됐으나, 2019년에는 보증잔액과 대위변제 금액이 증가하면서 운용배수도 15.4배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0년 농신보 보증잔액은 16조 1,117억원으로 운용배수는 16.7배로 계속 증가, 현재 추세대로 가면 2021년 운용배수는 17.1배(보증잔액 16조 8,200억원)로 법정운용배수인 20배에

근접할 전망이다.

정운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 병해피해, 장마, 폭우 등 자연재난까지 지금 우리 농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농신보는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인 만큼, 기금 보증역력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 운용배수 이내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보증지원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정운용배수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국회에서 정부출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온라인 한가위 큰 장터 역대 최대 매출 기록

전북도가 지난 한 달여 동안 우체국 쇼핑몰에서 개최한 '제12회 온라인 한가위 큰 장터'에서 역대 최대인 11억 4,7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39

일간 전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장터에는 도내 8개 기관(단체), 126개 마을기업, 314개 상품이 참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기관의 온

라인 판매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역대 최대 매출인 11억 4,700만 원(드라이브 스투 포함)을 달성했다는 점은 한가위 큰 장터가 도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행사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했다. /유호상 기자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 취임

권장현 제22대 서부지방산림청장이 5일 비대면 영상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경남합천 출신으로 지난 1990년 1월 공직생활을 시작해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 산림환경보호과장, 서울국유림관리소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 취임

장, 보은국유림관리소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산림행정과 현장전문가로도 정평이 있었다.

권장현 청장은 "서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 여건에 맞는 산림정책을 추

진하고, 지역주민 및 임업인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하겠다"면서 "국유림을 국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는 기획의 폭을 늘리는데 주력하고,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

모 집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 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저렴한 등록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p>▷ 전담교수 주요경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한국스피치,올림픽회 전북회장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 스피치 칼럼리스트 평생교육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전주매일 부사장 	
< 각 지역별 모집 > < 누구나 학습가능함 >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익산, 논산, 강경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퍼러더업,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군산, 서원,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고급,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

전북국가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위한 협의회 개최

클러스터 내 21개 지구 관리기관 참여해 활성화 방향·행정제도 개선방안 등 논의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5일 완주 스마트농생명 오픈랩에서 '전북도 국가혁신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클러스터 내 21개 지구의 관리기관이 참여하는 '단위거점 관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전북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지난 2018년도부터 전북 혁신도시를 포함한 직경 40km내 전주·익산·완주·김제·군산 지역 내 산단/농공단지 등 21개 지구를 지정해 스마트농생명융합산업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5일 완주 스마트농생명 오픈랩에서 '전북도 국가혁신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클러스터 내 21개 지구의 관리기관이 참여하는 '단위거점 관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신기술 및 전후방 연계 육성사업 개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R&D 실증프로젝트·사업화 지원, △지역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고도화, △글로벌 연계, △기업 투자유치, △기업지원 등으로 혁신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1단계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해 오는 2022년 종료되며, 이어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2단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위거점 관리기관 협의회 주관기관인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 주도로 산업융합지원부 김제자유무역

관리원,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차산단진흥센터,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북국가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방향, 행정제도 개선방안, 신규정책 발굴 등을 포함한 관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유호상 기자

특히, 2023년부터 진행할 예정인 국가혁신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도 함께 나왔다.

송금현 도 혁신성장정책과장은 "이번 협의회가 지자체와 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맺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회 개최를 통해 전북국가혁신클러스터와 전북도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 행정구역 조정 새만금청이 나서야”

김윤덕 국회의원,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서 주문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은 5일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행정구역 문제를 새만금청이 나서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양총도 새만금청장에게 "1년 전 방조제 관할에 이어, 새만금 동서도로를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간의 관할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인근 지자체들이 지난 5년여 간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펼쳤는데, 이번에는 또 다시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놓고 다툼이 시작되고 있어 전북지역 의원으로 참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회의원은 5일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행정구역 문제를 새만금청이 나서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청에서 '새만금 특별법'과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임을 강조하고 "이런 갈등 상황에서 새만금개발청이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무사안일하려 든다면, 새만금청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지적을 면기 어려울 것이다. '새만금 특별법'에서 특별로 새만금개발청에 행정관리 역할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새만금의 선 개발 이후 행정구역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이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새만금 권역 분쟁 해결을 위해 '새만금 행정협의 TF(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의)'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협의회가 새만금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행정 문제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적하면서 "자자체간의 갈등

이후 새만금 개발사업의 걸림돌이 될 확률이 높은 만큼 새만금 사업의 주체인 새만금개발청이 적극 나서서 행안부를 상대로 지자체 간의 신청을 반력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도 새만금개발청이 중립성을 갖춘 기관으로 갈등 조정 및 중재에 나서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면서

/유호상 기자